

2027
완성

2027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4 | 장풍운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풍운에게 닥친 어린 시절의 시련) 풍운은 이운경(조력자)에게 구조되어 성장하고, 이운경의 전처 최 씨의 소생인 경패와 혼인한다. 이운경이 세상을 떠난 뒤 후처 호 씨의 박대가 심해지자, 풍운은 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 경패의 동생 경운과 함께 집을 떠나고, 풍운과 헤어져 떠돌던 경패는 몸을 의탁한 단원사에서 시어머니 양 씨를 만난다. 한편 풍운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서번과 서달이 합세하여 서천 삼십육도(三十六都) 군장(君長)을 쳐서 항복받아 적세(賊勢)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시어 문무백관과 의논하니, 승상 이진이 아뢰었다. **‘적세가 커졌다는 소식에 놀라 문무백관과 대책을 의논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림 장풍운은 천하 영웅이오니, 대원수를 삼아 도적을 방지하소서.”

천자가 즉시 풍운을 불러 말했다.

“지금 역도(逆徒)의 세력이 여차하니 경의 지략을 아는 고로 한 번 수고를 시키고자 하노라. 경은 충의를 다하라.”(장풍운이 대원수로서 책임자라는 생각에 동의하여 장풍운을 전장에 보냄. **‘천자는 이진의 천거를 받아들여 풍운을 대원수로 삼았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풍운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하가 되어 이런 때를 만나서 어찌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겠나이까?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번 복을 쳐서 오랑캐를 싹 쓸어 없애리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회복을 추구하려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 줌.)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상장군 절월(節鉞)과 대원수 인수(印綬)를 주시고, 정예병 백만과 장수 천여 명을 주셨다. 이에 한림이 사은(謝恩)하고 그날로 훈련 장소에 나아가 군사를 훈련시킨 후, 다음 날에 하직하고 행군했다.

대원수 장풍운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적병을 만나 진(陣)을 치게 되었다. 적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한 대장이 앞서서 나와 싸움을 돈우거늘, 원수가 선봉장 양의에게 명하되, 계교를 가르쳐 내어보냈다.(장풍운의 지략적인 모습. **‘풍운은 양의에게 계교를 일러 주어 번달을 유인하게 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양의가 말을 타고 창을 빼어 들어 나가 서로 겨루기를 20여 합을 하고 거짓으로 패한 듯 달아났다. 그러자 번달이 기회라 싶어 급히 뒤쫓아 오니, 대원수가 지휘대에 올라 오방 기치를 휘두르며 지휘했다. 지휘에 맞춰 전후좌우의 대진이 일시에 대포를 쏘고 갑자기 습격하여 죽이자, 번달이 대원수의 계교에 빠진 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렸다. 대원수가 또 복을 울리고 기를 휘둘러 적병을 마음대로 마구 짓이겼다. 번달이 대패하여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니, **양의의 칼이 번뜻거리자 번달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장풍운의 함정에 걸려든 번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 번왕이 번달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어 항복했다. 대원수가 번국에 들어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고, 삼십육도 군장들을 계하(階下)에 무릎 꿇리고 죄상을 낱알이 들추어 밝히니, **위엄이 삼국에 진동했다.**(장풍운의 위엄을 과장법을 사용하여 강조함.)

이때 천자가 대원수를 보내시고 전황(戰況)을 몰라 밤낮으로 근심하시었다. 때마침 추밀사가 싸움에 이겼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천자가 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대원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더라.

차설. 대원수 장풍운이 회군하다가 서평관에 이르러 군사를 쉬게 했다. 이날 밤, 한 노승(전기적 요소. 미래를 예언하고 장풍운에게 여남으로 갈 것을 제시하고 있음. **‘꿈을 통해 인물에게 앞일을 일러 주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이 육환장을 짊고 임시 장막 앞에 이르러 대원수에게 말했다.

“대원수가 크나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시니 기쁘지만, 알지 못하겠소이다! **부모와 남자를 찾지 아니함은 어찌 된 일이오리까?**(장풍운이 과거에 가족과 헤어진 일이 있음을 드러냄.) 만일 찾고자 하거든 대로(大路)로 가지 말고 여남(汝南) 소로(小路)로 가면, 응당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옵니다.”

노승이 이렇게 말하고는 간데없거늘, 놀라 깨니 허무한 꿈일러라. **마음이 황홀하고 의심스러웠으나 즉시 중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하니,**(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여남으로 감. 개인적 차원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인물의 면모를 보여 줌.) 여남 소속 각 읍이 소란스러웠다. 여남에 이르러 한동안 머물기로 하고 진을 치는데, 대원수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밤이 깊도록 달빛을 의지하다가 잠깐 졸았다. 꿈에 문득 노승이 나타나 일러 주었다.

“대원수가 모친과 경패 남자를 보려 하거든 이 땅에서 찾으소서!”(노승은 풍운이 가족을 상봉할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함.)

대원수 장풍운이 노승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노사(老師)는 뉘시온데, 나의 부모와 남자가 있는 곳을 일러 주시나이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빈승(貧僧)은 금산사 화주이니이다. 그대가 정성이 지극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외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대원수는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공중을 향해 감사히 절하고 또 절했다.

날이 밝자, 고을의 수령을 청해 여남 경치에 대해 물으니, 태수가 대답했다.

“풍경을 보려 하시면 단원사 승방이 가장 빼어나게 좋습니다.”

대원수 장풍운이 듣고는 죽장망해의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시종들 아이만을 데리고 단원을 찾아 올라갔다.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시내를 두른 곳에 누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리었으니, 진실로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이었다.**(‘숙세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빼어난 곳으로 그려져 비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원수 장풍운이 절의 입구에 다다르니, 한 **노승**(가족 상봉을 위한 단서를 확인해 가는 존재)이 맞이했다. 노승이 이들을 본당에 좌정케 하고 온 연고를 묻자 대원수가 대답했다.

“나는 정처 없이 다니며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 가기를 바라나이다.”

“이곳은 승방이라 숙세의 사람이 머물지 못하니, 객실에서 묵으시옵소서.”

대원수 장풍운 일행에게 차를 대접한 후에 노승이 또 물었다.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셨나이까?”

“보지 못했나이다.”

그때 문득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니, 대원수가 그 연고를 묻자 노승이 대답했다.

“청승맞은 승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나이다.”

대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저절로 마음이 몹시 슬퍼져 눈물이 흐름을 주체하지 못하니,(승려들의 울음소리에 동요되어 자신의 가정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림.) 노승이 물었다.

“젊은이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슬퍼하시나이까?”

“나도 난중(亂中)에 부모를 잃고 그분들의 생사존망을 알지 못하니, 절로 슬퍼지나이다.”

“그러시면 어디서 이리도 훌륭히 성장하셨나이까?”(‘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력이 점차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 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천행으로 전 **통판 이 공**(이운경. ‘풍운이 ‘전 통판 이 공’을 만나 거두어졌다는 데서 조력자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두어 주시고 사위로 삼아 주신 은덕으로 몸을 보존했나이다.”

노승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러시면 그 닥 남자가 호 씨 소생이니까? 최 부인 소생이니까?”

“존사(尊師)가 어찌 이 통판 닥에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음을 아나이까? 나는 최 부인 사위로소이다.”

“그러면 낭자(경패)와 이별할 때 무슨 표적(장풍운의 ‘어려서 입었던 저고리’는 경패 낭자가, 낭자의 ‘진주투심’은 장풍운이 지니고 있음.)을 남겼나이까?”

대원수 장풍운이 놀라며 대답했다.

“어려서 입었던 저고리로 신물(信物)을 삼았나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경운 공자를 연경사에 두셨나이까?”

대원수가 어쩔 줄 몰라서 황급히 고마워하며 말했다.

“존사는 부모와 낭자 있는 곳을 아는가 보오니 그만 조롱하소서.”

노승이 웃고 뒤로 들어갔다 오더니 아이 옷(경패 낭자가 지니고 있던 신물)을 내어놓으며 물었다.

“이 옷을 이르시나이까?”

대원수가 한 번 보매 가슴이 막혀 말을 못 하니, 노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낭자를 보시려거든 진주투심*을 내어놓으소서.”(‘노승은 풍운에게 경패 낭자를 보려면 신물인 진주투심을 내어놓으라고 하였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대원수가 주머니 속에서 투심을 꺼내어 노승에게 주었다. 노승이 들어가 이를 낭자에게 주니, 낭자가 보고는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양 부인도 또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즈음에 이 일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으니, 제승(諸僧)이 붙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진주투심: 진주로 만든, 머리에 꽂는 장식물.

2027
완성

2027 완성 국어 문학 유형 연습 4 | 장풍운전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풍운은 이운경에게 구조되어 성장하고, 이운경의 전처 최씨의 소생인 경패와 혼인한다. 이운경이 세상을 떠난 뒤 후처 호씨의 박대가 심해지자, 풍운은 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 경패의 동생 경운과 함께 집을 떠나고, 풍운과 헤어져 떠돌던 경패는 몸을 의탁한 단원사에서 시어머니 양씨를 만난다. 한편 풍운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서번과 서달이 합세하여 서천 삼십육도(三十六都) 군장(君長)을 쳐서 항복받아 적세(賊勢)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시어 문무백관과 의논하니, 승상이진이 아뢰었다.

“한림 장풍운은 천하 영웅이오니, 대원수를 삼아 도적을 방비하소서.”

천자가 즉시 풍운을 불러 말했다.

“지금 역도(逆徒)의 세력이 여차하니 경의 지략을 아는 고로 한 번 수고를 시키고자 하노라. 경은 충의를 다하라.”

풍운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하가 되어 이런 때를 만나서 어찌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겠나이까?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번 북을 쳐서 오랑캐를 썩 쓸어 없애리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상장군 절월(節鉞)과 대원수 인수(印綬)를 주시고, 정예병 백만과 장수 천여명을 주셨다. 이에 한림이 사은(謝恩)하고 그날로 훈련 장소에 나아가 군사를 훈련시킨 후, 다음 날에 하직하고 행군했다.

대원수 장풍운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적병을 만나 진(陣)을 치게 되었다. 적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한 대장이 앞서서 나와 싸움을 돈우거늘, 원수가 선봉장 양의에게 명하되, 계교를 가르쳐 내어보냈다. 양의가 말을 타고 창을 빼어 들어 나가 서로 겨루기를 20

여 합을 하고 거짓으로 패한 듯 달아났다. 그
[A] 러자 번달이 기회라 싶어 급히 뒤쫓아 오니, 대원수가 지휘대에 올라 오방 기치를 휘두르며 지휘했다. 지휘에 맞춰 전후좌우의 대진이 일시에 대포를 쏘고 갑자기 습격하여 죽이자, 번달이 대원수의 계교에 빠진 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렸다. 대원수가 또 북을 울리고 기를 휘둘러 적병을 마음대로 마구 짓이겼다. 번달이 대패하여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니, 양의의 칼이 번뜻거리자 번달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번왕이 번달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어 항복했다. 대원수가 번국에 들어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고, 삼십육도 군장들을 계하(階下)에 무릎 꿇리고 죄상을 낱알이 들추어 밝히니, 위엄이 삼국에 진동했다.

이때 천자가 대원수를 보내시고 전황(戰況)을 물라 밤낮으로 근심하시었다. 때마침 추밀사가 싸움에 이겼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천자가 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대원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더라.

차설. 대원수 장풍운이 회군하다가 서평관에 이르러 군사를 쉬게 했다. 이날 밤, 한 ㉠노승이 육환장을 짊고 임시 장막 앞에 이르러 대원수에게 말했다.

“대원수가 크나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시니 기쁘지만, 알지 못하겠소이다! 부모와 남자를 찾지 아니함은 어찌 된 일이오리까? 만일 찾고자 하거든 대로(大路)로 가지 말고 여남(汝南) 소로(小路)로 가면, 응당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옵니다.”

노승이 이렇게 말하고는 간데없거늘, 놀라 깨니 허무한 꿈일리라. 마음이 황홀하고 의심스러웠으나 즉시 중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하니, 여남 소속 각 읍이 소란스러웠다. 여남에 이르러 한동안 머물기로 하고 진을 치는데, 대원수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밤이 깊도록 달빛을 의지하다가 잠깐 졸았다. 꿈에 문득 노승이 나타나 일러 주었다.

“대원수가 모친과 경패 남자를 보려 하거든 이 땅에서 찾으소서!”

대원수 장풍운이 노승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노사(老師)는 뉘시온데, 나의 부모와 남자가 있는 곳을 일러 주시나이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빈승(貧僧)은 금산사 화주이나이다. 그대가 정성이 지극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외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대원수는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공중을 향해 감사히 절하고 또 절했다.

날이 밝자, 고을의 수령을 청해 여남 경치에 대해 물으니, 태수가 대답했다.

“풍경을 보려 하시면 [단원사] 승방이 가장 빼어나게 좋습니다.”

대원수 장풍운이 듣고는 죽장망해의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시종들 아이만을 데리고 단원을 찾아 올라갔다.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시내를 두른 곳에 누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리었으니, 진실로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이었다. 대원수 장풍운이 절의 입구에 다다르니, 한 ㉠노승이 맞이했다. 노승이 이들을 본당에 좌정케 하고 온 연고를 묻자 대원수가 대답했다.

“나는 정처 없이 다니며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 가기를 바라나이다.”

“이곳은 승방이라 속세의 사람이 머물지 못하니, 객실에서 묵으시옵소서.”

대원수 장풍운 일행에게 차를 대접한 후에 노승이 또 물었다.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셨나이까?”

“보지 못했나이다.”

그때 문득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니, 대원수가 그 연고를 묻자 노승이 대답했다.

“청승맞은 승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나이다.”

대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저절로 마음이 몹시 슬퍼져 눈물이 흐름을 주체하지 못하니, 노승이 물었다.

“젊은이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슬퍼하시나이까?”

“나도 난중(亂中)에 부모를 잃고 그분들의 생사존망을 알지 못하니, 절로 슬퍼지나이다.”

“그러시면 어디서 이리도 훌륭히 성장하셨나이까?”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천행으로 전 통판 이 공을 만났는데, 그

분이 거두어 주시고 사위로 삼아 주신 은덕으로 몸을 보존했나이다.”

노승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러시면 그 댁 남자가 호 씨 소생이니까? 최 부인 소생이니까?”

“존사(尊師)가 어찌 이 통판 댁에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음을 아나이까? 나는 최 부인 사위로 소이다.”

“그러면 남자와 이별할 때 무슨 표적을 남겼나이까?”

대원수 장풍운이 놀라며 대답했다.

“어려서 입었던 저고리로 신물(信物)을 삼았나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경운 공자를 연경사에 두셨나이까?”

대원수가 어쩔 줄 몰라서 황급히 고마워하며 말했다.

“존사는 부모와 남자 있는 곳을 아는가 보오니 그만 조롱하소서.”

노승이 웃고 뒤로 들어갔다 오더니 아이 옷을 내어놓으며 물었다.

“이 옷을 이르시나이까?”

대원수가 한 번 보매 가슴이 막혀 말을 못 하니, 노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남자를 보시려거든 진주투심*을 내어놓으소서.”

대원수가 주머니 속에서 투심을 꺼내어 노승에게 주었다. 노승이 들어가 이를 남자에게 주니, 남자가 보고는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양 부인도 또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즈음에 이 일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으니, 제승(諸僧)이 붙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진주투심: 진주로 만든, 머리에 꽂는 장식물.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천자는 이진의 천거를 받아들여 풍운을 대원수로 삼았다.
- ㉡ 풍운은 양의에게 계교를 일러 주어 번달을 유인하게 하였다.
- ㉢ 풍운은 단원사에서 자신이 대원수임을 노승에게 밝혔다.
- ㉣ 노승은 풍운에게 경패 남자를 보려면 신물인 진

주투심을 내어놓으라고 하였다.

- ⑤ 경패 남자는 진주투심을 보고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2.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꿈을 통해 인물에게 앞일을 일러 주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내력이 점차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③ 공간을 묘사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④ 서술자가 작품 표면에 나서서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고백하고 있다.
 ⑤ 전투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부각한다.

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반전함으로써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물의 외양을 구체화함으로써 선악의 대립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교차하여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④ 사건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며 인물의 뛰어난 지략을 부각하고 있다.
 ⑤ 인물의 행적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여 인물의 긍정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풍운은 천자 앞에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ㄴ. 번왕은 번달이 죽자 끝까지 맞서 싸우다 사로잡혔다.
 ㄷ. 풍운은 꿈에 나타난 노승의 말을 듣고 여

남으로 향하였다.

ㄹ. 단원사의 노승은 풍운에게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았다고 답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풍운에게 부모와 남자를 찾을 길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② ㉡은 신물을 통해 풍운의 정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③ ㉠은 꿈속에 나타나고, ㉡은 현실에서 풍운과 마주한다.
 ④ ㉠과 ㉡은 모두 풍운이 가족과 재회하도록 이끄는 데 관여한다.
 ⑤ ㉠은 풍운의 정체를 모른 채 등장하고, ㉡은 풍운을 적대하여 위기에 빠뜨린다.

6. 장풍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원사에서 자신의 정체와 사연을 숨기다가 점차 털어놓게 되었다.
 ② 천자의 명을 부담스러워하여 대원수직을 사양하고 전장에 나섰다.
 ③ 노승이 부모의 행방을 알려 주자 의심 없이 곧바로 믿고 여남으로 향하였다.
 ④ 전투에서 직접 적장과 겨루어 번왕의 목을 베었다.
 ⑤ 어머니와 남자가 단원사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단원사로 향하였다.

7. 천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운이 가족을 찾도록 직접 여남으로 가라고 명하였다.
- ② 적세가 커졌다는 소식에 놀라 문무백관과 대책을 의논하였다.
- ③ 풍운에게 절월과 인수, 많은 군사를 내려 출정하게 하였다.
- ④ 풍운이 떠난 뒤 전황을 몰라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 ⑤ 추밀사의 장계를 받고 승전 소식에 크게 기뻐하였다.

- ① ㄴ - ㄷ - ㄹ - ㄱ
- ② ㄴ - ㄹ - ㄷ - ㄱ
- ③ ㄷ - ㄴ - ㄹ - ㄱ
- ④ ㄴ - ㄷ - ㄱ - ㄹ
- ⑤ ㄷ - ㄴ - ㄱ - ㄹ

8. 단원사 노승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운의 꿈에 나타나 풍운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② 자신의 과거를 통해 풍운의 깨달음을 유도하고 있다.
- ③ 풍운의 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여 그를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
- ④ 질문을 던져 풍운의 내력과 정체를 차츰 확인해가고 있다.
- ⑤ 정체를 숙인 풍운의 거짓말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다.

9. 뒷글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ㄱ. 풍운이 단원사에서 노승에게 신물을 건넸다.
- ㄴ. 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번왕의 항복을 받는다.
- ㄷ. 풍운이 꿈에서 노승에게 여남 소로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
- ㄹ. 풍운이 태수에게서 단원사 승방을 추천받는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꿈은 인물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려 주거나, 흩어진 인물들을 한자리로 이끄는 서사적 장치로 자주 쓰인다. 이때 꿈에 나타난 초월적 존재는 인물이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거나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장풍운전」에서도 노승이 나타나는 꿈은 가족의 재회를 향해 사건을 이끄는 구실을 한다.

- ① 풍운의 꿈에 나타난 노승은 인물에게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는 초월적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노승이 ‘여남 소로’로 가라고 하며 ‘모친과 낭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꿈의 인도를 따라 여남에 이른 것은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노승의 꿈은 풍운과 가족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볼 수 있겠군.
- ⑤ 노승의 꿈은 풍운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예고하여 긴장감을 높이는 장치로 볼 수 있겠군.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웅 소설은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시련을 겪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 뒤, 공을 세우고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는 이야기 구조를 흔히 보인다. 그런데 「장풍운전」은 영웅 소설의 구조를 가지면서도 주인공의 신분 회복과 가족의 재회에 무게를 둔다는 특징이 있다.

- ① 풍운이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떠돌았다는 데서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시련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풍운이 ‘전 통판 이 공’을 만나 거두어졌다는 데서 조력자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풍운이 ‘대원수’가 되어 적을 물리친 데서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풍운이 대원수가 되는 것에서 주인공이 신분을 회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풍운이 단원사에서 가족과 만나게 되는 데서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겠군.

고난도 12. <보기>의 ㄱ~ㄴ 중,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 관계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 ㄱ. 경패는 이 통판의 딸로, 풍운의 아내이다.
- ㄴ. 양 부인은 풍운의 어머니로, 경패에게는 시어머니이다.
- ㄷ. 경운은 풍운의 친동생으로, 연경사에 머물고 있다.
- ㄹ. 이진은 풍운을 대원수로 천거한 승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3. 「단원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량하고 스산한 모습으로 그려져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② 속세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빼어난 곳으로 그려져 비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③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으로 그려져 시대의 혼란을 드러낸다.
- ④ 변화한 저잣거리의 모습으로 그려져 세속적 활기를 드러낸다.
- ⑤ 인물의 권위를 드러내는 웅장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풍운은 이운경에게 구조되어 성장하고, 이운경의 전처 최씨의 소생인 경패와 혼인한다. 이운경이 세상을 떠난 뒤 후처 호씨의 박대가 심해지자, 풍운은 운경이 남긴 유서에 따라 경패의 동생 경운과 함께 집을 떠나고, 풍운과 헤어져 떠돌던 경패는 몸을 의탁한 단원사에서 시어머니 양 씨를 만난다. 한편 풍운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서번과 서달이 합세하여 서천 삼십육도(三十六都) 군장(君長)을 쳐서 항복받아 적세(賊勢)가 견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천자가 크게 놀라시어 문무백관과 의논하니, 승상이진이 아뢰었다.

“한림 장풍운은 천하 영웅이오니, 대원수를 삼아 도적을 방비하소서.”

천자가 즉시 풍운을 불러 말했다.

“지금 역도(逆徒)의 세력이 여차하니 경의 지략을 아는 고로 한 번 수고를 시키고자 하노라. 경은 충의를 다하라.”

풍운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하가 되어 이런 때를 만나서 어찌 자신의 몸을 먼저 돌보겠나이까?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한 번 복을 쳐서 오랑캐를 싹 쓸어 없애리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가 크게 기뻐하여 상장군 절월(節鉞)과 대원수 인수(印綬)를 주시고, 정예병 백만과 장수 천여명을 주셨다. 이에 한림이 사은(謝恩)하고 그날로 훈련 장소에 나아가 군사를 훈련시킨 후, 다음 날에 하직하고 행군했다.

대원수 장풍운이 행군한 지 여러 날 만에 적병을 만나 진(陣)을 치게 되었다. 적진의 문이 열리는 곳에 한 대장이 앞서서 나와 싸움을 돋우거늘, 원수가 선봉장 양의에게 명하되, 계교를 가르쳐 내어보냈다. 양의가 말을 타고 창을 빼어 들어 나가 서로 겨루기를 20여 합을 하고 거짓으로 패한 듯 달아났다. 그러자 번달이 기회라 싶어 급히 뒤쫓아 오니, 대원수가 지휘대에 올라 오방 기치를 휘두르며 지휘했다. 지휘에 맞춰 전후좌우의 대진이 일시에 대포를 쏘고 갑자기 습격하여 죽이자, 번달이 대원수의 계교에 빠진 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렸다. 대원수가 또 북을 울리고 기를 휘둘러 적병을 마음대로 마구 짓이겼다. 번달이 대패하여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니, 양의의 칼이 번뜻거리자 번달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번왕이 번달의 죽음을 보고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어 항복했다. 대원수가 번국에 들어가 백성의 사정을 살펴서 어루만져 위로하고, 삼십육도 군장들을 계하(階下)에 무릎 꿇리고 죄상을 낱낱이 들추어 밝히니, 위엄이 삼국에 진동했다.

이때 천자가 대원수를 보내시고 전황(戰況)을 몰라 밤낮으로 근심하시었다. 때마침 추밀사가 싸움에 이겼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천자가 보시고 크게 기뻐하며 대원수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더라.

차설. 대원수 장풍운이 회군하다가 서평관에 이르러 군사를 쉬게 했다. 이날 밤, 한 노승이 육환장을 짊고 임시 장막 앞에 이르러 대원수에게 말했다.

“대원수가 크나큰 공을 이루고 돌아오시니 기쁘지만, 알지 못하겠소이다! 부모와 남자를 찾지 아니함은 어찌 된 일이오리까? 만일 찾고자 하거든 대로(大路)로 가지 말고 여남(汝南) 소로(小路)로 가면, 응당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옵니다.”

노승이 이렇게 말하고는 간데없거늘, 놀라 깨니 허무한 꿈일러라. 마음이 황홀하고 의심스러웠으나

즉시 중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하니, 여남 소속 각 읍이 소란스러웠다. 여남에 이르러 한동안 머물기로 하고 진을 치는데, 대원수는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밤이 깊도록 달빛을 의지하다가 잠깐 졸았다. 꿈에 문득 노승이 나타나 일러 주었다.

“대원수가 모친과 경패 남자를 보려 하거든 이 땅에서 찾으소서!”

대원수 장풍운이 노승의 소매를 잡으며 물었다.

“노사(老師)는 뉘시온데, 나의 부모와 남자가 있는 곳을 일러 주시나이까?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빈승(貧僧)은 금산사 화주이나이다. 그대가 정성이 지극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되다.”

이렇게 말하고는 온데간데없었다. 잠에서 깨어난 대원수는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래도 공중을 향해 감사히 절하고 또 절했다.

날이 밝자, 고을의 수령을 청해 여남 경치에 대해 물으니, 태수가 대답했다.

“풍경을 보려 하시면 단원사 승방이 가장 빼어나게 좋습니다.”

대원수 장풍운이 듣고는 죽장망혜의 아주 간편한 차림으로 시종들 아이만을 데리고 단원을 찾아 올라갔다.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시내를 두른 곳에 누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리었으니, 진실로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이었다. 대원수 장풍운이 절의 입구에 다다르니, 한 노승이 맞이했다. 노승이 이들을 본당에 좌정케 하고 온 연고를 묻자 대원수가 대답했다.

“나는 정치 없이 다니며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는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만 쉬어 가기를 바라나이다.”

“이곳은 승방이라 속세의 사람이 머물지 못하니, 객실에서 묵으시옵소서.”

대원수 장풍운 일행에게 차를 대접한 후에 노승이 또 물었다.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셨나이까?”

“보지 못했나이다.”

그때 문득 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니, 대원수가 그 연고를 묻자 노승이 대답했다.

“청승맞은 승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흔히 있는 일이나이다.”

대원수가 이 말을 듣고 저절로 마음이 몹시 슬퍼져 눈물이 흐름을 주체하지 못하니, 노승이 물었다.

“젊은이가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슬퍼하시나이까?”

“나도 난중(亂中)에 부모를 잃고 그분들의 생사존망을 알지 못하니, 절로 슬퍼지나이다.”

“그러시면 어디서 이리도 훌륭히 성장하셨나이까?”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천행으로 전 통판 이 공을 만났는데, 그 분이 거두어 주시고 사위로 삼아 주신 은덕으로 몸을 보존했나이다.”

노승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러시면 그 댁 남자가 호 씨 소생이니까? 최 부인 소생이니까?”

“존사(尊師)가 어찌 이 통판 댁에 전실(前室)과 후실(後室)이 있음을 아나йка? 나는 최 부인 사위로 소이다.”

“그러면 남자와 이별할 때 무슨 표적을 남겼나이까?”

대원수 장풍운이 놀라며 대답했다.

“어려서 입었던 저 고리로 신물(信物)을 삼았나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다.

“경운 공자를 연경사에 두셨나이까?”

대원수가 어쩔 줄 몰라서 황급히 고마워하며 말했다.

“존사는 부모와 남자 있는 곳을 아는가 보오니 그만 조롱하소서.”

노승이 웃고 뒤로 들어갔다 오더니 아이 옷을 내어놓으며 물었다.

“이 옷을 이르시나이까?”

대원수가 한 번 보매 가슴이 막혀 말을 못 하니, 노승이 기뻐하며 말했다.

“남자를 보시려거든 진주투심*을 내어놓으소서.”

대원수가 주머니 속에서 투심을 꺼내어 노승에게 주었다. 노승이 들어가 이를 남자에게 주니, 남자가 보고는 통곡하다가 기절했다. 양 부인도 또한 꿈에도 생각지 못한 즈음에 이 일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으니, 제승(諸僧)이 붙들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 작자 미상, 「장풍운전」

*진주투심: 진주로 만든, 머리에 꽂는 장식물.

14. ‘신물’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고리’와 ‘진주투심’은 헤어진 가족을 확인하는 증표로 쓰인다.
- ② 노승은 ‘저고리’를 내어 보여 풍운이 찾던 인물임을 확인시킨다.
- ③ 신물은 풍운이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하는 직접적 수단이 된다.
- ④ ‘진주투심’은 경패 남자가 풍운임을 알아보게 하는 매개가 된다.
- ⑤ 신물은 인물들 사이에 서로 나눈 것으로 재회를 이루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15. 풍운의 심리 변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승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가족의 소식을 안다고 확신하였다.
- ② 부모 이야기를 하다 슬픔에 잠겼다가, 노승이 신물을 내놓자 가슴이 막혀 말을 잊지 못하였다.
- ③ 단원사에 오를 때부터 가족과의 재회를 예감하고 기뻐하였다.
- ④ 노승의 물음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
- ⑤ 노승이 꿈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풍운은 단원사에서 자신을 ‘정처 없이 다니며’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이라 하고, 대원수의 행차를 ‘보지 못했나이다’라며 자신이 대원수임을 숨긴다. 따라서 자신이 대원수임을 밝혔다는 설명은 작품과 어긋난다.

- ① 천자는 ‘대원수를 삼아 도적을 방비하소서’라는 이진의 말을 따라 풍운을 대원수로 삼았다.
- ② 풍운은 선봉장 양의에게 ‘계교를 가르쳐 내어보냈’고, 양의는 이를 따라 거짓으로 패한 듯 달아나는 것으로 번달을 유인하였다.
- ④ 노승은 ‘남자를 보시려거든 진주투심을 내어놓소서’라고 하였다.
- ⑤ 경패 남자는 진주투심을 보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즈음에 이 일을 당하여’ 통곡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2. [정답] ④

이 작품은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밖에서 전하는 방식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며, 서술자가 표면에 나서서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지 않는다.

- ① 노승이 꿈에 나타나 부모와 남자를 찾을 길을 알려 주는 데서 전기적 요소가 나타난다.
- ② ‘전실’과 ‘후실’, ‘신물’ 등을 주고받는 노승과 풍운의 대화를 통해 풍운의 과거가 점차 드러난다.
- ③ **[매력적인 오답]** 단원사를 ‘산수가 수려하고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시내를 두른 곳에 누각이 하늘로 치솟아 있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리었’다고 서술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⑤ 계교로 번달을 유인해 격파하는 지략적인 모습이나 전투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풍운의 활약을 부각한다.

3. [정답] ④

[A]는 거짓 패주로 적을 유인한 뒤 대포와 습격으로 격파하는 전투의 진행 과정을 차례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계교로 번달을 무너뜨리는 풍운의 뛰어난 지략이 부각된다.

- ① [A]에는 전기적 요소나 분위기의 반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A]는 인물의 외양을 감각적으로 구체화하거나 선악의 대립 구조를 그리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 ③ [A]는 한 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그릴 뿐, 다른 장소의 사건을 교차하지 않는다.
- ⑤ [A]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인용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정답] ②

ㄱ. 풍운이 ‘한 번 복을 쳐서 오랑캐를 싹 쓸어 없애리니’라고 말한 것에서 적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ㄴ. 풍운이 꿈속 노승의 말을 듣고 ‘즉시 종군에 명령하여 여남으로 행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 번왕은 번달이 죽자 ‘감히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어 항복’하였으므로 끝까지 맞서 싸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길에서 대원수의 행차를 보셨나이까?’라는 노승의 물음에 ‘보지 못했나이다’라고 답한 것은 풍운이므로, 노승이 보았다고 답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⑤

㉠은 풍운에게 부모와 남자의 행방을 알려 주고, ㉡은 신물로 정체를 확인해 가족을 만나게 한다. 따라서 ㉠이 풍운의 정체를 모른 채 등장하거나 ㉡이 풍운을 적대하여 위기에 빠뜨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은 ‘여남 소로로 가면 ~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부모와 남자를 찾을 길을 알려 준다.
- ② ㉡은 ‘저고리’와 ‘진주투심’이라는 신물을 통해 풍운이 찾던 인물임을 확인한다.
- ③ ㉠은 꿈속에 나타나고, ㉡은 단원사에서 현실의 풍운과 마주한다.
- ④ ㉠은 길을 알려 주고 ㉡은 재회를 이루어 주므로, 둘 다 풍운의 재회에 관여한다.

6. [정답] ①

풍운은 단원사에서 자신을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

이라 하며 정체를 숨기다가,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난중에 부모를 잃고’ 떠돈 내력을 차츰 털어놓는다. 이로써 노승과의 대화 속에서 그의 사연이 드러난다.

② 풍운은 명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오랑캐를 썩 썩어 없애리니’라며 충의를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대원수직을 사양하지도 않았다.

③ 풍운은 꿈에서 깬 뒤 ‘의심스러웠’으므로 의심 없이 곧바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매력적인 오답]** 번왕은 번달의 죽음을 보고 싸울 마음이 없어 손을 묶고 항복했으며 번달의 목을 벤 것은 ‘양의의 칼’이므로 풍운이 직접 벤 것이 아니다.

⑤ 풍운은 풍경을 보려 하시면 ‘단원사 승방이 가장 빼어나게 좋’다는 태수의 말을 듣고 단원사로 간 것이지, 어머니와 남자가 단원사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향한 것이 아니다.

7. **[정답]** ①

풍운이 여남으로 향한 것은 꿈에 나타난 노승의 말 때문이지 천자의 명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천자가 직접 여남으로 가라고 명하였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② 천자는 적세가 커졌다는 소식에 ‘크게 놀라시어 문무백관과 의논’하였다.

③ 천자는 풍운에게 ‘절월과 대원수 인수’, ‘정예병 백만과 장수 천여 명’을 주어 출정하게 하였다.

④ 천자는 ‘전황을 몰라 밤낮으로 근심’하였다.

⑤ 천자는 추밀사의 장계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대원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8. **[정답]** ④

노승은 성장 내력, 남자의 출생, 이별의 표적, 경운의 거처 등을 거듭 물어 풍운이 자신이 찾던 인물임을 차츰 확인해 간다. 그 끝에 신물을 내보여 재회를 이끈다.

① 단원사의 노승은 풍운의 꿈에 나타난 인물이 아니며 풍운이 가족을 재회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② 노승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며 풍운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다.

③ 노승은 풍운의 청을 거절하여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객실에서 묵으라고 하며 차를 대접했다.

⑤ 노승은 정체를 숙인 풍운의 거짓말로 인해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고 있지 않다. 가족 간의 재회를 돕고 있다.

9. **[정답]** ①

풍운은 대원수가 되어 번왕의 항복을 받고(ㄴ), 회군 중 꿈에서 여남 소로로 가라는 말을 듣는다(ㄷ). 이어 여남에서 태수에게 단원사 승방을 추천받고(ㄹ), 단원사에 올라 노승에게 신물을 건넨다(ㄱ). 따라서 ㄴ-ㄷ-ㄹ-ㄱ의 순서이다.

②, ③, ④, ⑤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⑤

작품에서 풍운은 이미 전쟁에 승리하였고, 노승의 꿈은 가족의 재회로 사건을 이끄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꿈이 전쟁의 패배를 예고하여 긴장감을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꿈속 노승은 풍운에게 가족을 찾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일러 주는 초월적 존재로 볼 수 있다.

② **[매력적인 오답]** ‘여남 소로’로 가라며 ‘응당 모친과 남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노승의 말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노승의 말에 따라 ‘여남으로 행군’하여 여남에 이른 것은 가족의 재회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④ 우연으로 보이는 만남이 꿈을 통해 예고됨으로써 재회에 필연성이 부여된다.

11. **[정답]** ④

앞부분 줄거리에서 풍운은 고생 끝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다. 풍운이 대원수가 되는 것은 이 이후의 일이므로 대원수가 된 것을 주인공이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여덟 살에 부모를 잃고’ 떠돈 데서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는 시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 통판 이 공’이 풍운을 거두고 사위로 삼은 데서 조력자의 도움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대원수가 되어 적을 물리친 데서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단원사에서 가족과 만나게 되는 데서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12. [정답] ③

- ㄱ. 풍운이 '이 통판 댁'의 '최 부인 사위'이고 남자가 그 댁 소생이라는 데서 경패가 이운경의 딸이자 풍운의 아내임을 알 수 있다.
- ㄴ. [앞부분 줄거리]에서 경패가 단원사에서 '시아머니 양 씨'를 만난 데서 양 부인이 풍운의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 ㄷ. '승상 이진'이 풍운을 대원수로 천거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 ㄹ. [앞부분 줄거리]에서 경운은 '경패의 동생'이므로 풍운의 친동생이 아니다.

13. [정답] ②

- 단원사는 '산수가 수려하고' '상서로운 구름이 어렸'으며 '이 세상 밖의 다른 세상'으로 묘사된다. 이는 숙세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빼어난 공간으로, 비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① 단원사는 황량하고 스산한 모습이 아니라 수려하고 상서로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 ③ 단원사는 폐허가 아니라 '다른 세상' 같은 절경으로 그려진다.
- ④ 단원사는 '승방'이자 절경으로, 변화한 저잣거리로 그려지지 않는다.
- ⑤ 단원사는 숙세와 구별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인물의 권위를 드러내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14. [정답] ③

- 신물인 '저고리'와 '진주투심'은 헤어진 가족을 확인하고 재회를 이루는 데 쓰일 뿐,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 ① '저고리'와 '진주투심'은 경패 남자와 풍운이 서로를 확인하는 증표로 쓰이므로 적절하다.
- ② 노승은 어려서 입었던 '저고리'를 내어 보여 풍운이 찾던 인물이 단원사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진주투심'을 본 남자가 통곡하는 데서 그것이 남자가 풍운을 알아보게 하는 매개임이 드러난다.
- ⑤ 신물은 풍운과 경패 사이에 서로 나눈 것으로 재회를 이루는 증표의 역할을 한다.

15. [정답] ②

풍운은 '난중에 부모를 잃고' 떠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흐름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슬퍼하다가, 노승이 신물인 아이 옷을 내놓자 '가슴이 막혀 말을 못' 하게 된다.

- ① 풍운은 노승을 처음 만났을 때 정처 없이 다니며 경치를 구경하는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다가 노승과 대화하며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풍운이 처음부터 확신하는 장면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③ 풍운은 여남 경치를 보기 좋은 곳을 태수에게 추천받아 간 것이므로 단원사에 오를 때부터 가족과의 재회를 예감한 것이 아니다.
- ④ 풍운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후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 ⑤ 풍운이 단원사에서 만난 노승은 꿈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